

5월의 기도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5-6)



-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의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6월 4일, 5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의 Word of Life(생명의 말씀)교회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아르메니아 성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박우택, 안희순, 오주봉, 이형준, 원소선, 정미란, 정경자, 정낙숙, 최인철, 한경남, 함석숙, Esther Han, 010-2726-XXXX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말로써 삶을 다스려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담임목사님이 "목사님 창문을 열어 보십시오"라고 해서 창문을 열어보니 봄 꽃이 활짝 피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시장에 가서 꽃나무를 사가지고 와 심어 놓은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어놓자 어디선가 나비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비는 사온 것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목사님의 말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령께서 날아오십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몰려옵니다. 쥐한테 오지 말라고 해도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오고 벌레들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꽃을 갖다 놓으면 나비와 벌들이 옵니다. 마음에 어떠한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일이 한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꿈과 믿음을 말로써 시인하면 꿈과 믿음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초청 일본 대성회 성료

조용기 목사 "꿈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라"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 2,300여명 참석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5월 6일 일본에서 열린 2014 일본대성회 주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2014년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을 부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는 '회복'을 주제로 히비야공회당에서 일본 전역 90여 개의 교회에서 2,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이 올랐다.

일본폴가스펠교단(총회장 정대원 목사)이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 제1부 행사는 김여호수아 목사(순복음가와사키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야마토갈보리채플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 오오가와 츠쿠미치 목사(야마토갈보리채플)가 말씀을 전했다. 오오가와 목사는 빌립보서 4장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세월호 사건은 진정한 마이너스 사건

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플러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세대 김성혜 총장이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어진 제2부 성회는 최진용 목사(순복음긴시초교회)가 인도하는 찬양에 이어 일본폴가스펠교단 총회장 정대원 목사(순복음동경교회)의 개회 선언, 우창희 목사(순복음야마토교회)의 대표기도, 신승호 목사(순복음하마마츠교회)의 성경봉독, 조용기 목사의 37년의 일본선교와 세계선교가 담긴 DCEM 영상이 방영됐다.

오오가와 목사가 이번 성회 주강사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주제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가 맡았다.

히비야공회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기립박수로 강단에 선 조용기 목사는 '꿈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며 "꿈이 없는 백성은 믿음도 없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꿈을 보고 믿음대로 고백하라"고 4차원의 영성을 강조했다.

이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일본대성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되어가는 고통 속에서 일본인들의 심령회복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정치적 긴장으로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나가는 뜻 깊은 성회였다.

어두움에는 빛이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10절>

만 열면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2.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남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전통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전통에 싸여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면 저처럼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거꾸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고통스러운 체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제 안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제 마음만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모두 노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식구를 다 전도해서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뤄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M. Luther)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양 속담에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태어난 것과 같으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의 슬하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만

나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3. 극한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남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려고 오셨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고통과 문제에 둘러싸여 짓눌려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됩니다. 이제 진정한 보배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달라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남

우리는 아름답고 조용한 중에 미풍 같이 스치며 지나가는 은혜의 성령으로 깊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를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문을 자꾸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놓은 마음 문으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일본대성회 이모저모

37년간 씨뿌린 일본 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



일본 전역에서 일천만구령운동을 이끌어 온 일본폴가스펠교단 산하 교회와 일본교회들이 연합해 히비야공회당에서 '2014년 도쿄지저스페스티벌'을 5월 6일 개최했다. 주강사로는 일본 선교 37년째를 맞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나섰다.

이번 성회에는 시작 전부터 성회장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의 줄이 히비야공회당 주변을 둘러쌌고, 문이 열리자 성도들은 순식간에 성회장 안을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채웠다. 이를 통해 지난 37년간 힘써온 일본 일천만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내 행사가 한국교회 한국성도가 아닌 일본 현지인들의 봉사자와 현지교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이라 일본 선교의 열매가 더욱 값지고 귀했다.

성회 참석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부르며 조용기 목사를 향해 축복했고, 또 일본이 변화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적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며 악을 선으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조용기 목사는 “여러분은 요셉이다. 원수가 여러분을 악하게 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불행에서 건져주신다.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신다.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활 속에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꿈꾸고 믿어라. 응답 받았다고 고백하라. 이 고백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가정이 변화된다.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국가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게 한 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다. 참석자들은 큰소리로 ‘아멘’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이날 행사는 조용기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성회장 밖에서 기다리며 안수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조용기 목사는 직접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한편 순복음도교교회는 이번 성회를 위해 정대원 담임목사의 인도로 한달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설교 후 치유기도와 결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